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3호 [루계 제23005호] 주제 99 (2010)년 2월 22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보안성협주단의 첫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조직된 인민보안성협주단의 첫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협주단에 술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혁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강능수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보안상인 주상성동지,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리병삼동지를 비롯한 인민보안성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협주단에 술인들은 합창 《경례를 받으시라》, 혼성 2중창과 합창 《2월은 봄입니다》, 혼성 4중창과 합창 《변이 나는 내 나라》, 어온금병창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님께》, 대화시 《민심》, 득창과 소합창 《사랑의 세계》, 《정말 좋은 세상이야》, 혼성 득창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은 우리의 행복》, 손풍금 중주 《전선에서 만나자》, 혼성 2중창 《오늘도 그날처럼》, 기타병창 《래일을 믿으라》, 합창시 《장군님을 위하여》, 합창 《조선의 행운》, 《번영하여 라로동당시대》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인 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사랑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나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 인민의 보위자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자기들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60여년의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빛내이며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톤튼히 지켜 사회주의조국의 전취물파에 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온 내무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영원히 사상도 뜻도 승결도 운명도 함께 하며 계급투쟁의 제일선부대, 당의 내무군으로서의 영에로운 사명을 다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철통같이 지켜갈 인민보안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인민보안원들을 항일의 7년대

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대로 지닌

당의 정치보위자로, 혁명의 전취물파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사수

하는 결절한 혁명투사들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인민보안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열화같은 흥모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협주단예술인들이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가지고 통속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민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보안성협주단이 조직된지는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지만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화려한 공연무대를 짤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협주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고동치는 혁명적군인 정신이 날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조직된 인민보안성협주단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예술선전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협주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협주단을 몸소 무어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첫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며 힘을 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창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인민보안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 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창작들을 여러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국기자, 언론인 대회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사계절 눈비를 다 헤치시는 불멸의 현지지도 강행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혁사를 창조해 오시는 나날의 기상관측자료를 전한다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을 안아오기 위한 대고조 시기의 총진 군길에 걸세의 국자, 위대한 한 평도자의 강행군자육이 끝없이 세겨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기 위해 혁사적인 1월호소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비의 공격정신과 백발불굴의 의지로 혁사에 있어 본분이 없는 초강도의 현지지도 강행군을 단행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계절 불철우아로 걸으시는 이로정은 무더위와 강추위, 비바람과 눈보라가 들이닥친 수십년의 가장 콧은들이 많아 온 나라 인민은 어버이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간절한 헌원으로 심장의 피를 흘리고 있다.

최근 기상수문국에서 종합한 새로운 대고조 시기의 기상 관측 자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가 얼마나 영웅적인 정성인가를 가슴드드게 전하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우기 위해 조국땅 빙방곡곡에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는 인민의 행복을 꽂고 피우기 위해 세월의 눈비를 다 헤쳐가신 나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제 98 (2009) 년

온 해 200여개의 단위를 찾으신 날과 달들에는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며 수천리를 이어가신 날을 비롯하여 불리한 일기상태들이 기록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벼두에 맵짠 추위속을 헤치시고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1월의 현지지도자들은 초당 10m 이상의 철바람이 세차게 물아치고 있던 통악산의 대봉에도 그대로 세겨졌다.

통악산은 인민의 유희지로 더 잘 꾸려기 위해 얼음울진 가파를고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긴 참판로정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펴려며 일군들은 경애에 목이 맹했다.

2월의 눈바람을 다 맞으으며 라남을 비롯한 대규모 광야기지들과 만포시, 회령시, 원산시내 공장, 기업소 등 많은 단위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C의 추운 날씨에 무산평안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는 철산봉마루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력을 떨치고 있는 광부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광산을 세계적인 철광석 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데서는 전투적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날을 추억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철산봉의 날씨가 여간 날지 않더라고 무를 두드리며 하신 말씀은 절세위인의 무한한 현신의 강행군일회로 력사에 세겨졌다.

5월의 봄계절에 북부산간지대들에서 최저온도가 -2~-5°C로 내려가 심한 서리피해를 입는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매우 불리한 부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을 찾으셨으�다.

이 길에는 로동계급의 소박한 예술소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수십년 기상관측이래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한 삼복에도 현지지도길에 계시였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과 북부지방에서 7월 27일부터 8월 중순까지 낮 최고 기온이 30°C 이상으로 올라가는 심한 고온현상이 지속된 이 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평양방직공장에서 경직숙지해 군대 학교로, 송도원 청년 아외장에서 북창화학발전련합기업소와 8.6동 청년환관에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폭양이 내려조이는 속에서 땅에 푹 절은 손수건을 몇 뺨이나 바꾸며 구장앙어장을 험지지도하시고 낮 최고기온이 33°C의 추운 날씨에 무산평안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위대한 현신의 강행군들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나날들에도 기상기후조건을 가볍게 계속되었다.

이날을 추억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철산봉의 날씨가 여간 날지 않더라고 무를 두드리며 하신 말씀은 절세위인의 무한한 현신의 강행군일회로 력사에 세겨졌다.

5월의 봄계절에 북부산간지대들에서 최저온도가 -2~-5°C로 내려가 심한 서리피해를 입는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매우 불리한 부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을 찾으셨으�다.

이 길에는 로동계급의 소박한 예술소조

들을 평양의 화려한 무대에 세우자고, 눈이 많이 내려 평길이 미끄러울데 하루 밤 폭재에 떠나보내자는 사랑의 말씀을 남기시고 자신께서는 그 밖으로 평평 솔아지는 눈에 덮인 평을 넘어 또다시 선선으로 달리신 날도 있었다.

12월에는 북방의 세찬 바람을 헤치시며 자강도 인민들과 성강로 동계급을 찾으시고 1,000여 명으로 행군으로 2월에 계시였다.

개성에서 김일성광장 전선소련사들 속에 헤쳐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폭양이 내려조이는 속에서 땅에 푹 절은 손수건을 몇 뺨이나 바꾸며 구장앙어장을 험지지도하시고 낮 최고기온이 33°C의 추운 날씨에 무산평안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위대한 현신의 강행군들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나날들에도 기상기후조건을 가볍게 계속되었다.

이날을 추억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철산봉의 날씨가 여간 날지 않더라고 무를 두드리며 하신 말씀은 절세위인의 무한한 현신의 강행군일회로 력사에 세겨졌다.

5월의 봄계절에 북부산간지대들에서 최저온도가 -2~-5°C로 내려가 심한 서리피해를 입는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매우 불리한 부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을 찾으셨으�다.

이 길에는 로동계급의 소박한 예술소조

을 찾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엄혹한 날씨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은 세령광산과 성강강철

2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

에 련이어 세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대하여 한 광부도 하시고 -2~5°C의

세계적으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계지를 찾는 것은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례로 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이 쉬임없이

쓰여내리는 속에서 광산의 여러 광구들을 돌아보면서 한겨울로 친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데</

봉남산과 더불어 길이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둘려주고 있다.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이 새겨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 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비쁘신 속에서도 지난 12월 또다시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찾

.

새로생

우리는 안내조정·설원숙동부의 안내를 받으며 수영관의 자동화전문을 통하여 드넓은 수영장으로 들어섰다.

푸른 물 흘러거리는 수영장수가 부러워선가 동해의 갈매기로 찾아와 흰 것을 활짝 펴고 봉남산의 행복한 웃음꽃을 구경했을 때서의 파도가 그대로 굽어져 천정을 이룬듯 여기 수영장은 그야말로 황홀경의 세계였다.

걸음을 못 떼는 우리를 안내장은 사와실로 이끌었다.

여러 칸으로 되어있는 사와실

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그는 사와실의 바닥을 가리켰다.

『저 틱의 높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사와실의 매 칸에서부터 수영장으로 나가는 통로사이에 있는 턱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5cm쯤 되겠다고 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었다.

지난해 3월 어느 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 교직원,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문화회식을 물론 국제경기도 활

수 있게 현대적인 설비들과 편

.

바꿔여진

목욕탕의 창문유리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웠다.

.

창문유리

영광의 그날 오픈 시간에 걸

쳐 수영장수조면적과 물량, 물

온도며 실내온도, 관람석의

.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2월 21일발 조선

중앙통신] 전국기자, 언론인

대회 참가자들이 21일 혁

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

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지님이 신김보현선생님과 함께님이 신리보의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김반석녀사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전정하고 묵상하였다.

이어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유서깊은 만경대교당집을 찾은 그들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펴는 그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대

교당생산기지의 명모에 감탄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독자회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얼마전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빠져 평양선원에 입원

하였던 한 녀성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되찾고 대

지를 활보하게 되니 치료기

간 받아온 마음속 충격이

너무도 커서 그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

밀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들었습

습니다.

사람이 공기속에서 살면서 그들이 진정 어린 모습을 보면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처음 눈에 띄운 것은 제가 정신을 차리기를 안티깝게 기다리는 3

부인과 친구인 선생님을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면부족으로 충혈된 눈

들이었지만 저의 두손을 꼭 잡

으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정말이지 그들의 정성에 눈물겹도록 고마웠고 이런 훌륭한

의사와 간호원들이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친 협의회와 협의진단, 초음파진단이 진행되고 수많은 의사, 간호원들이 바친 뜨거운 힘과 저의

대통령과 함께 힘을 통하여

느끼게 한 잊지 못할 나날이

.

애국의 뜻으로 봉요한 가을을

을

돌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꽂피는 공화국을 동경하며

«이북은 사람들의 리상이 현실로 꽂여난 인류의 리상사회이다.»

«오늘날 북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인류가 오랜 기간 꿈꾸어온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리상향이다.»

«이북은 전민이 민복을 누리는 리상향이다.»

…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친다는 말이 있다.

남녘 거대들은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던 리상과 평화로 위대한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현실로 꽂여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녘의 가는 광야에서 인민의 리상을 꽂피워주시기 위해 끌없는 애국현신의 로고를 바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성의 목소리를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인터넷 토론피들이에는 «김정일장군님의 궁극적 목표는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미지않아 세계는 강성평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대단한 배심,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북을 모든 분야에서 최강의 위력을 날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다.» 등 각계 총인민들의 격동된 심정을 담은 글들이 실고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 힘을 믿고 번영할 힘을 위해 전민이 간고분투하는 우리 공

화국의 현실에 감동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국주의의 평화체력과 단독으로 맞서 쇠약의 힘으로 역경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이북, 기적같이 솟구쳐올라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북을 보면 무한한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광주에 사는 한 주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대해 차기의 심정을 이렇게 더놓았다.

«어떻게 하면 민중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살게 하겠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절충되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현지지도는 민중에 어떤 식료품을 먹여 먹고 어떤 생활수품을 사용하여 어떤 생활수품을 먹여 먹고 무엇을 비비는가를 알아보시고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명처방을 찾으니 내시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이같은 현지지도는 이북땅 그 어디에나 땅 아팠다.»

누구나 화목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그리며 한생을 살이웠다는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이북에서의 형도자께서 올출하시며 민중이 일심 단결되고 우는 비약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도가 있는 한 공화국의 강성대국건설을 펼칠 때 힘차게 대고자고 있다. 자기 형도자와 자기 형도를 고단파시련을 맞받아 끊고나가는 이 영웅적 투정신은 세상을 놀라우는 비약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도가 있는 한 공화국의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들어서고 있다. 형도자와 민중이 일심단결된 이희한 현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비경이라 아니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도 아닌 바로 한지역으로 험한

잇닿아있는 북에 인류의 리상향이 절쳐진데 대해 한없는 궁지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이북비로 알기기의 한 회원은 동료들에게 절세의 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복구상을 펼쳐지고 그 실현을 위해 장군님의 정치가 남녘땅에 펼쳐질 그 날을 위해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밟아나가고 열렬히 호소한 대구의 한 로동자의 가슴에도 걸을 마디하지 않으시고 협지지도 강행 군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정녕인민의 어버이이시라고, 우리 민족은 평도자복을 태운다고 감각의 눈물을 흘린 푸항의 로인과 누구나 태워 기다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가 남녘땅에 펼쳐지고 그 실현을 위해 장군님의 정치가 남녘땅에 펼쳐질 그 날을 위해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밟아나가고 열렬히 호소한 대구의 한 로동자의 가슴에도 드겁게 간직되어있다.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 같은 이북민중의 기쁨이 커지고 나라는 재부가 늘어나는 걸 알게 되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절충되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현지지도는 민중을 풀어놓고는 그에 따른 행운을 기록하고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

나는 거대들은 우리 인민이

오늘날 북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인류가 오랜 기간 꿈꾸어온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리상향이다.»

광주에 사는 한 주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대해 차기의 심정을 이렇게 더놓았다.

«어떻게 하면 민중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살게 하겠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절충되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현지지도는 민중을 풀어놓고는 그에 따른 행운을 기록하고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 같은 이북민중의 기쁨이 커지고 나라는 재부가 늘어나는 걸 알게 되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절충되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현지지도는 민중을 풀어놓고는 그에 따른 행운을 기록하고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

나는 거대들은 우리 인민이

오늘날 북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인류가 오랜 기간 꿈꾸어온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리상향이다.»

…

나는 거대들은 우리 인민이

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옹대한 구상을 펼쳐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현지지도 강행 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

대구의 한 로동자는 우리 공화국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아직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목표». «웬만한 자신심이 없이는 엄두도 내기 힘든 계획»이지만 여기에는 기어이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현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있는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그처럼 불현듯불의 정력적인 활동을 이어가시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는 찾이볼수 없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놀랄라 과 경관을 표시하고 있다.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지난 조선전쟁을 놓고

이전에도 «기념»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조선전쟁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원

기에게 암울하게 펼쳐졌다.

남조선인민들은 인민을 하늘

처럼 여기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까지

인민에게 해이될수 없는 전쟁참화를 들썩였으

며 삼천리강과 풍물전쟁과

남조선보수당이 «기념»이니 뛰어

며 대대적으로 벌려놓으며 하는 반공화국령대

국은 이런 범죄적 기도와 관련된 호전성고취를

들이 벌여지고 있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북과 남사이의 혼례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좌파와 협력,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지는 못할당정

부로 도발을 걸며 분별없이 해법비는 남조선보

수당국의 반민족적 행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

오이며 대량살상에 대한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만민의 흠토를 받으시는 현시대의 걸출한 위인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캄보디아에서 노동자들은 일로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기념로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해당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캄보디아 당 부수장 콩 쌈은 노동당 당부수장으로서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대로 이어 강화발전 될 것이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 건강하시여 사업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미날리, 경부지개혁 및 관련 상 담당부 위원회. 자력갱생 연구회 위원장 쯔비쉬 까지 쉬페스라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대로 이어 강화발전 될 것이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 주석 각하의 사업을 훌륭히 보좌해 드리셨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면서 실로 캄보디아 당과 함께 한 반공파국 책동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새 시기, 때 단계마다 옮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있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 주석 각하의 사업을 훌륭히 보좌해 드리셨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면서 실로 캄보디아 당과 함께 한 반공파국 책동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새 시기, 때 단계마다 옮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있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민의 결심과 노력이 빛나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 노동자와 함께 마련해 주시었으며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대로 이어 강화발전 될 것이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 건강하시여 사업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미날리, 경부지개혁 및 관련 상 담당부 위원회. 자력갱생 연구회 위원장 쯔비쉬 까지 쉬페스라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대로 이어 강화발전 될 것이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 주석 각하의 사업을 훌륭히 보좌해 드리셨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면서 실로 캄보디아 당과 함께 한 반공파국 책동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새 시기, 때 단계마다 옮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있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 주석 각하의 사업을 훌륭히 보좌해 드리셨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면서 실로 캄보디아 당과 함께 한 반공파국 책동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새 시기, 때 단계마다 옮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있다.

김정일 원수 각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 주석 각하의 사업을 훌륭히 보좌해 드리셨다.

그이께서는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나라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면서 실로 캄보디아 당과 함께 한 반공파국 책동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새 시기, 때 단계마다 옮바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 있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사업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것은 네팔인민의 응당한 의무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풀름비아 강제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하이로 콘살레스는 김정일 각각의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시키는 탁월한 사상리론자이며 선군령도로 강성대 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이에게는 동지들

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다. 그이에게는 또한 혁명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다. 그이에게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다. 그이에게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은 동

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격에 어울리지 않는 가소로운 추태

일본자민당이 아직도 저들이 일본의 정치고리를 틀어쥐고 있는 듯이 착각하는 것 같다. 최근에 일본자민당이 그 무슨 《특별조치법안》 결정이니, 《현법개정》이니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민당이 들고 나오는 《특별조치법안》은 인디아양에서 해상 《자위대》의 군유 활동을 부활시키는 것을 꿔하고 있다.

이번 자민당이 전후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정치고리를 키워 혼들려 렸었다. 그것은 철저히 미국의 뜻이었다.

자민당은 사실상 미국의 노북노릇을 충실히 해오면서 품삯을 변변히 받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유엔안보리 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만들어버린 자민당의 끔드 미국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대미 추종이 체질화된 자민당은 해상 《자위대》의 군유 활동을 되살리는 《특별조치법안》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어찌구 저찌구 하고 있다. 그래서 현 일본당국은 《자위대》의 명목 밖에 여러 해 동안 벌려온 인디아양에서의 해상 《자위대》의 군유 활동을 법적으로 그 기한이 끝나는 1월 15일로 계산을 짚고 《자위대》를 고수하였다.

자민당이 추구하는 헌법개정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일본국민은 자기 나라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다. 그이에게는 일본국민은 자기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자 기전에 마음속연도다 아버지는 가장 친근한 분이다. 그이에게는 일본국민은 자기 나라의 인정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은 첫 머리에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인정미는 만사람을 지나친다. 김정일령도자는 한번 만나 봤을 때 그의 위엄적 풍모와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곤 한다.

글은 첫 머리에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인정미는 만사람을 지나친다. 김정일령도자는 한번 만나 봤을 때 그의 위엄적 풍모와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곤 한다.

그은 첫 머리에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인정미는 만사람을 지나친다. 김정일령도자는 한번 만나 봤을 때 그의 위엄적 풍모와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곤 한다.

본사기자

이제 일본은 일본자민당을 끝내고 혼들려 렸다.

자민당은 일본을 일본자민당으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느낄 줄도 모르고 망신스러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자주성이 없이 남의 풍에 놀아나면 그러는 법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자민당은 오늘의 일본민심과 제처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안팎으로 물리우며 정치적 낭떠러지에 서 있는 주제에 《특별조치법안》이나, 《현법개정》이니 뛰어넘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 넘는 행실이다.

자민당은 미국에 잘 보여야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군국주의 애침을 이룰 수 있다고 탄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갓 잠꼬대에 불과

와 손가락질을 받아온 오합지졸의 과정구락부

리경수

조선은 세계의 정신적 대국

로씨야 신문의 글

16일 로씨야신문 〈네자비 씨마야 가제파〉가 우리 나라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칭양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국가의 진짜 위력을 국내총생산액, 예산赤자 등과 같은 가능성 있는 지표를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세부, 도덕적 세부와 도덕적 타락의 방지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세계에서 정신적 대국이다.

조선에는 주체사상과 조선의 전통적인 혁명성을 전하고 있다.

조선에는 주체사상과 조선의 전통적인